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0월 14일 (제97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여유 있는 삶

내 인생 70을 살고 보니 '여유'보다 귀한 단어가 없더라.

여유란 남을 여(餘)와 넉넉할 유(裕)로 이루어져 있다. 곧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가 여유다. 오래 전 일이다. 누군가에게 여행용 가방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을 사가지고 왔다. 그런 그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봐, 플라스틱은 늘어나지 않잖아. 천으로 된 것을 사왔으면 더 들어가서 여유가 있지." 자고로 사람이건 물건이건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넉넉함과 느긋함 말이다. 그래야 만인과 만물이 파고든다. 박식하고 논리 정연하여 빈틈없는 사람은 민첩하고 스마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솔직히 플라스틱 가방처럼 딱딱하여 정이 안 간다. 하지만 뽀얀 나무에 참새가 깃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 그러나 좀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에 새가 물리듯 사람들이 몰린다. 왜냐하면 심신에 여유가 생기면 서두르지 않고 타박하지 않는다. 배려도 생기고 나를 유머도 생긴다. 사람들과도 무난히 소통하게 되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그릇은 한정되어 있다. 거기에 여유가 생기는 방법은 빼내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일정한 부피에서 여유를 주려면 그 안의 것을 빼내야 하듯, 우리 삶에 여유를 주려면 불필요한 것들, 지나쳐 넘치는 것들, 안 좋을 것들을 빼내야 한다. 지나친 명예욕과 소유욕, 과한 출세욕..., 이런 것들을 빼내면 삶의 여유가 온다. 여유가 있어야 사람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오실 것이 아닌가.

삶의 여유를 가져라. 이것은 잉여시간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여유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들고 그들이 당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우리 매사 여유를 갖고 살자. 이것이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다! "누구든지 너로 오리 가자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마5:41).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목사님은 언젠가 주일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안에서 故 김수환 추기경이 어눌하게 부르는 노래소절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하신 적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목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30여 년을 달려온 세월을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진실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육체적 장애를 가진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던다. 물론 그동안도 해마다 사랑의 쌀 및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배달, 구제물품 보내기 등 153구제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지만, 더 자주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보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하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야겠구나. 우리 장로, 권사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토록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임무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사신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낮아져 겸손히 섬기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에 이롭고 빛도 없이 수고하는 염상섭 장로, 유명숙 전도사, 주축복 전도사, 그리고 김수현 장로를 비롯한 장애인 선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잠 19:17).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네 이웃의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을



장애인 초청잔치(2018년 10월 9일, 장애인선교회실)

신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점심시간에 뜻있는 장로, 권사 등과 함께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파티를 여셨다. "나는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채비'라는 영화를 보고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을 두고 차마 먼저 눈을 감을 수 없어 애타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하며 '이제 정말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영혼들을

나는 육체적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정신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비록 육체적 장애를 가졌지만 모두가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자랑스롭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며 섬기고 있는 염상섭 장로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 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

운택하게 하는 자는 운택하여지리라'(잠 11:25).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저가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철저히 보상해주시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는 예수중심의 형제자매들이 되십시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 뜻있는 장로, 권사들이 준비한 음식을 장애우들과 함께 나누었고, 자리를 파하며 그들을 일일이 포옹하고 자주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한은택 목사**



조촐한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다



농아들과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2:9~16)



선택과 책임, 내게 있는데 누굴 탓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시사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차를 가지고 출근할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선택해야 하고, 점심때면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해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갈까 그냥 퇴근할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선택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따먹는 쪽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그 책임도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평생 수고해야 함은 물론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으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창3:16~19). 그런데 이에 아담이 반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준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나 충성 이전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 책임은 누구도 아닌 선택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신앙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또한 자신이 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아담처럼 누굴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니? 나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신 30:19). 그러려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신30:20)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곧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면 영생이요, 믿지 않기로 선택했으면 영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법이고, 아무리 선을 행한들 방향이 다르면 소용없는 법,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고 명한 것이고, 엘리야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

나님이면 그를 좇을찌니라”(왕상18:21)고 촉구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인 베들레헬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나오미의 것이므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다. 모압을 선택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대신 그는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헬으로 향했습니다(룻1).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하고, 하나님 편을 택해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열심과 충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일에, 신앙에 열심을 낼 것이냐, 충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 교회만 다닐 것이냐’의 선택도 본인의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

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 25:21)라고 하였고,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마 25:30)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되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주인 탓을 했습니다. 그가 ‘게으른 내 탓입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회생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충성된 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

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2:10). 남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다’고 제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충성에 대해 한문 풀이까지 해주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십일조나 헌물도 선택입니다. 십일조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는 자에게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 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0~12)고 약속하셨습니다. 십

일조를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슨 일인가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인생이 삭막하고 풍성하지 않다면 그것은 십일조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당신의 책임입니다. 괜히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택에 따른 조건부의 축복을 이미 제시하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중요한 일입니다. 역시 그 선택에도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어떤 청년이 유튜브를 보고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요즘 불황이라 취직이 안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듣고 있던 제가 그 청년에게 “왜 세상 탓을 해? 네 탓을 해야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네 탓이고, 능력이 없는 네 탓이지, 왜 현실을 탓해?”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도 취직한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가끔 자기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에게 ‘왜 그 때 안 말했느냐’고 항의하는 자들이 있는데,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왜 부모 탓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하는 자는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병이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를 탓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 안한 나를 탓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8:36~37)고 육체를 잘 간수해야 함을 알려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육의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다. 최대한의 솜씨로 마련해둔 환경에서 아담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 있는 만물은 너를 위한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개척해봐. 내가 너를 축복할거야.’ 이것이 바로 근본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명령에 더하여 영적 존재인 아담에게 덧붙이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참! 난 내가 만들었어. 네게 많은 소유와 능력을 주어 네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지만 난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야. 이 건 잊지 마. 난 이 명령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행복한 것이니 잊으면 안 돼.’ 하신 것이다. 이게 선악과 명령이다. 선악과는 동산 어디서든 잘 보이는 나무 한그루를 지정하여 날마다 바라보며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명령이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피조물이 피조물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담은 날마다 선악과를 바라보지만,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생명을 보존하며 에덴동산의 온갖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제안은 부당하고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괜한 약속을 했다. 혹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는 추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그런 제안을 하신 걸까?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성과 의지뿐 아니라 감정도 완전하신 분이시다. 선악과 명령으로 인하여 설령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아담의 인격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다. 스스로 자원하지 않는 사랑이나 찬양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 없으신 것이다. 결국 아담에게 부여한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내 큰 어려움을 겪으신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후회와 절망으로 전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기도 하시고, 거들거들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수 천 년을 분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외면당하시고 인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을 감수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에 아들을 내어주시실 정도로 결코 인간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절정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여 매일 선악과(말씀) 명령을 순종하며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신앙논객 ::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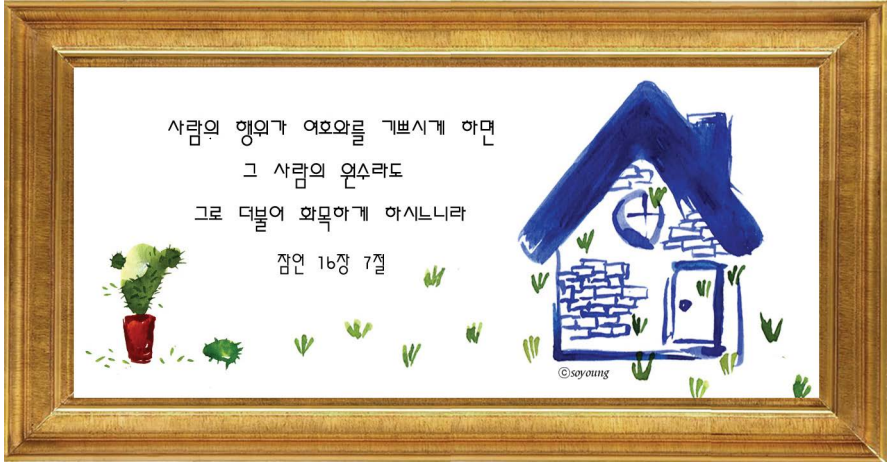
얼마 전, 충북 음성군의 한 쿠키 제과 전문점에 대한 소식으로 언론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 내용인즉슨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겉포장만 새로 하여 유기농 수제(手製) 쿠키라고 속여 팔고, 롤 케이크 역시 대형 제빵회사의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명성을 얻고 매장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이 가게는 결국 폐업하고 말았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데 대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아무리 포장을 새롭게 하고 진짜인 것처럼 속여도 내용물이 진짜가 아니면 결국에는 가짜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듬뿍 부여하신다고 느낄 때는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믿음으로 인해 작은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쿠키와 롤 케이크가 겉포장을 까서 먹어보면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 내지는 ‘잘 나갈 때’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넘어서면 돌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삶에 열매가 없으면 가시밭이라고. 우리가 욕이나 다니엘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이 옥토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천국 백성,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일 가짜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즉시 포장지를 뜯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새로운 믿음의 반죽을 시작하라.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고난은 삶의 파트너

목사님은 ‘~덕분에’와 ‘~때문에’라는 설교를 종종 하신다. ‘~덕분에’는 긍정적인 마인드요, ‘~ 때문에’는 부정적인 마인드로 말씀하신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겠느냐’ 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분명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일이었지만, 타인들로 인해 나는 갈등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일들을 알아보고 취득한 자격증만 10개가 넘는다. 하루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게 어른들이 나에게, “너는 아버지도 안계시고, 누가 도와줄 상황도 아니니까 남들보다 수십 수백 배 노력해야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서럽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맞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라고 마음을 다잡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뿐이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 덕분에 자각증을 10개나 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활동범위도 넓어졌다. 또한 도와줄 사람이 없는 덕분에 더욱 기도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은 잠 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고난이나 역경은 인생의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깨닫고, 강해지고, 지혜와 감사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나무의 나이트가 굽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나보다. 이은성 성도
es2563@naver.com



:: 생명의 말씀 ::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

얼마 전 우리 교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지인이 대뜸 하는 말, “교회 이름이 예수중심교회인데, 어떻게 이단입니까? 그거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어쩌면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말이 내 귓전에서 계속 맴돌았다. 때를 거슬러 2002년을 회상해 보았다. 해외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남아공 집회 현지에서, ‘예수중심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더없이 뜨거웠던 현장에 있었던 나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름과 현상이 일치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설명이 안 된다.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설명이 된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구속주로서의 예수를 믿고 난 뒤, 그 분이 바로 창조주이심도 알게 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그리스도교 전

파를 막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왔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인간 선지자 중의 하나로, 혹은 예수 없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예수를 깎아내렸다.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참과 거짓의 여부는 그리스도에 의해 판정된다’는 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열매의 진위여부도 결정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경이 말씀해준다.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 안에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은 서로 조화되어 일할 수 없다(고후6:14-15).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귀신축사의 진위여부를 놓고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해볼 일이다.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부지런한 자의 경영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가장 먼저 1시간 기도를 하시고, 사무나를 다녀오시면 새벽 6시 정도 되는데, 이 시간부터 우리 집은 혼이 쑥 빠질 정도로 정신이 없어집니다. 남동생 둘은 회사에서 새벽까지 야근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회식을 해도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거나 꾸물대면 아버지께서는 작은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와 손가락으로 물을 튕겨 동생들을 깨우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 재우고 싶어 하시지만 아버지께는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밤을 꼬박 새는 일이 자주 있는데, 아침에 늦게 출근을 하면 어머니께서는 피곤한 제 모습을 안쓰러워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초체한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되레 심하게 나무라십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이 먼저 출근하고 나오면 회사가 잘 돌아가겠나? 그렇게 게을러서 회사가 성공할 것 같으나?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회사에 일찍 나와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지. 너 그렇게 사업하다가 망할까 겁나다.”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대면할 때면 귀를 막고 싶기도 했고, 짜증도 심하게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밤새도록 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부지런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게으르다고 하시는 건지 도무

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 다. 제가 하루 종 일 어떻게 일하고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지 눈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업무의 특성상 체력을 요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가끔씩 숨이 턱턱 막혀올 때도 있었습니 다. 그러다 아버지의 심한 꾸중을 들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한 없이 가엽고 불쌍하다 생각이 들고,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 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잠언 12장 24절이었습니 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도 제 몫이 되어 마치 제가 부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스스로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지 경영자의 입장에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었습니 다. 목사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길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머리가 할 일이 있어, 각자 맡은 본분에 맞게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머리가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손이 바쁘고 발이 바빠서 머리로서의 부지런함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른 새벽에 몸을 청결하게

하고, 직원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하셔서 아침 예배와 업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의 하루를 조금씩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기도로 아침을 열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출근 전 아버지 회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니, 하루 일과가 머릿속에 그려졌고,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 처리가 능숙한 직원들에겐 하루 동안 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쳤습니 다. 이전엔 조급한 마음에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도 도맡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근무 시간 동안 다 처리할 수 있어 더 이상 밤을 새거나 과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바쁘게 움직이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에 쫓겨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 부지런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아닐까요?

김은유 집사
ceo@edenique.co.kr

존대어의 위력

남편이나 아내와 불화하십니까? 혹은 자녀와 소원하십니까? 물꼬를 트는 한 가지 방법은 존대어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하는 모습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성년이 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끈끈한 정을 토대로 바른 인성이 형성되길 원하신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존대어를 써보세요.

저는 전라도 최남단 제주도 바로 위 완도라는 섬, 아름다운 지리적 환경에서 낳고 자랐습니 다. 하지만 뜻도 모를 육두문자에 가까운 속어와 비어, 욕설이 난무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 다. 그러기에 삶에 염증을 느낀 저는 서울각쟁이 바른 말씨,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산다는 서울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욕설들이 회미한 추억이 되어 미소를 머금게 하지만, 어린 시절, 특히 주위 분들에게 듣는 욕은 몸서리쳐지게 싫었고 적잖은 심리적 내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억센 사투리일지라도 아버지는(국졸) 어머니께(무학), 어머니는 아버지께 서로 존대어를 쓰셨고, 동네 어르신들은 저희 가정을 평생 큰소리 한번 나지 않고 부부금실이 좋다는 평판을 어깨너머로 몇 번씩 들곤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고, 곧 존대어를 써주었습니다. 이 존대어는 자연스럽게 온 몸을 적시고 영혼까지 파고들어 지금은 어디를 가든 그 존대어가 가족의 자존감을 당당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답니 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엄마가 메모를 하면 자식도 메모하고, 엄마가 항상 미소 지으면 자식도 항상 미소 지으며, 먼저 인사하면 자식도 인사 잘하고..., 어แบ이 부족할 것입니다. 제일 큰 농사가 자식농사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내다보는 당신에게 특별한 가정교육 운운하며 열거하기보다 존대어의 참된 위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노년에 깊은 주름살 속에서 장탄식을 토하지 않길 바랍니다.

추성숙 집사

산삼도독

:: From Internet ::

나무꾼 박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올해는 가겠지 했는데 또 한해가 속절없이 흘러 딸애는 벌써 스물아홉이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딸년 탓이 아니라 가난 탓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장에 내다 팔지만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 가끔씩 매과가 와서 중매를 서지만 혼수 흥내 낼 돈도 없어 한숨만 토하다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착한 박 씨는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 나뭇짐도 점점 작아진다.

눈이 펄펄 오는 어느 날, 그는 지게에 도끼와 톱을 얹고 산으로 갔다. 그런 박 씨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다. 새하얀 눈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 아닌가. 그 산삼은 자그마치 일백 이십년 묵은 동자삼!!

박 씨가 일백 이십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켜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 저잣거리의 약재상이 찾아왔다. “박 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천석꾼 부자 황참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 씨는 이끼로 찌 산삼을 보자기에 싸 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잣거리 주막으로

갔다. 황참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박 씨를 기다리는데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노름꾼들, 꺾령패들도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마침내 박 씨가 보자기를 풀자 일백이십년생 동자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와~ 모두가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챘다. 일백 이십년 묵은 동자삼을 개뻥파귀 같은 노름꾼 놈이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는 것이 아닌가. 주막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놈을 잡고보니 폐병으로 쿵쿵 쿵쿵 하는 놀음쟁이 허골이었다. 제대로 놀음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고리나 뜯는, 집도 절도 없는 젊은 놈팡이 허골은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당나벌처럼 부어오른 채 황참봉 수하들에 의해 방바닥에 구겨져 있었다.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렷다.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 낼 테다.”

황참봉의 일갈에 허골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 때 박 씨가 나섰다. “참봉어른, 아직까지 허골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요. 이놈의 배를 찌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황참봉 할 말이 없다. 박 씨는 허골을 데리고 나와 언덕마루에서 그를 풀어줬다. 눈발 속으로 허골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박 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애 시집보내려 했는데... 배를 찌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웬 그런 복이...”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 씨가 나뭇짐을 지고 산을 내려와 집 마당으로 들어오니,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녀죽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소인, 허골입니다.”

괴골이 상점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골은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돼 마포나루터에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다. 꽃 피고 새 우는 화창한 봄날, 허골과 박 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박 씨는 더 이상 나무지계를 지지 않고 저잣거리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았다.

세상에 제일 값진 것은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이다.

